

Christian Education for the Post-Corona World

코로나 이후 세계를 위한 기독교교육

유재덕(Jae-Deog Yu)

Abstract

Christian education for the world after COVID-19 needs to use rapid changes in the surrounding situation as an opportunity to overcome a new crisis so that the church can achieve its educational mission. If the biggest dilemma in the post-Corona era is that there is no authoritative educational prescription anywhere, the most reasonable option for church education in this situation is to emphasize and cultivate learners' ability to flexibly cope with rule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than before COVID-19. As a natural result of the crisis, Christian education needs to be more interested in the trend of social change in the pandemic era (glocalization, digital transformation, economic inequality, educational environment change, church crisis) and actively reflect its contents in education. In addition, while operating a mobile (or online) church school that combines offline and onlin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n innovative transition to a core church school where certain church schools and churches cooperate with each other, a church school that guarantees a safe learning space, and an ecological church school that is interested in educatio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and ecology.

Key Words

Christian education, COVID-19, Social changes, Mobile education, Core church education, Safety, Ecolog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Grant.

Received November 26, 2022 **Revised** December 28, 2022 **Accepted** December 29, 2022

Author : Yu Jae-Deog, Professor,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paulu@stu.ac.kr

코로나 이후 세계를 위한 기독교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the Post-Corona World

유재덕(Jae-Deog Yu)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코로나 팬데믹 종식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시점에 이 논문은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가늠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진행된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다섯 가지 관점, 즉 세계화, 디지털, 불평등, 교육체제, 교회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한다(II장). 계속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회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서 팬데믹 이후 세계에 필요한 기독교교육의 향후 방향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III장, IV장).

결론 및 제언 : 코로나 이후 세계를 위한 기독교교육은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성취하도록 현재 상황을 위기 극복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추후 기독교교육은 팬데믹 시대의 사회 변화(지역 중심 세계화, 디지털 전환, 경제 불평등, 교육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성찰하면서 모바일 교회학교, 거점 교회학교, 안전한 교회학교, 생태 교회학교로의 혁신적 전환이 시급하다.

〈 주제어 〉

코로나 팬데믹, 기독교교육, 사회 변화, 모바일 교육, 거점 교육, 안전 교육, 생태 교육

□ 2022년 11월 26일 접수, 2022년 12월 28일 심사완료, 2022년 12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며, 한국기독교학회 정기학술대회(2022. 10. 29.)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했음.

**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paulu@stu.ac.kr

I. 들어가는 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이하 ‘코로나’) 팬데믹은 발생 이후 3년째 지속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단기간에 전 방위적으로 노출한 코로나 팬데믹은 의료는 물론 정치 및 경제, 그리고 종교와 교육을 비롯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근본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의료 수준에서는 팬데믹 조기 종식을 위해 개인 및 정부의 효율적인 방역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바이러스의 주요 특징과 감염경로, 또는 집단감염의 시공간적 특성에 대한 정보 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되었다. 세계적으로는 지역에 따른 편차를 배제할 경우 WHO의 낙관적 전망처럼 코로나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보급으로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팬데믹에 따른 부정적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이진희 et al., 2021).

현재는 세계적으로 백신 부재에 따른 팬데믹 발생 초기의 충격을 벗어나 가까운 시일에 팬데믹 종식의 선언을 기대할 정도이지만, 코로나 발생 이래로 줄곧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과학이 절정에 달했다고 간주하는 21세기에 어쩌서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게 된 것일까? 코로나 팬데믹이 사회 전반에 초래한 주요 문제들은 무엇들일까? 그리고 이와 같은 두 가지 질문과 관련해서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표면상 상이하면서도 상호 무관하지 않은 세 가지 질문을 달리 표현하자면, (1) 코로나 팬데믹 원인, (2) 영향, 그리고 (3) 향후 대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팬데믹의 원인은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발병 초기 중국 우한(武漢)이라는 특정 지역과 인구 이동이라는 외적 조건에 집중하던 수준을 벗어나서 글로벌 생태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생태계 교란으로 초점이 바뀌었다. 팬데믹은 전쟁과 지진처럼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에서 초래된 것으로서 생태계 교란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유사한 지구적 재앙이 반복된다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는 사회적 불안과 혐오, 경제적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공 안전 간의 갈등과 함께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정보 플랫폼의 연결과 디지털 매체를 통한 가상-물리 공간 융합의 가속화가 거론된다. 이런 논의를 기반으로 생태계 보존이나 세계화의 탈피,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거버넌스의 확보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논문은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가늠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세계에 적합한 기독교교육의 대안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진행된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

를 다섯 가지 관점, 즉 세계화, 디지털, 불평등, 교육체제, 그리고 교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차례로 검토한다(II장). 계속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회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서 팬데믹 이후 세계에 필요한 기독교교육의 향후 방향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III장, IV장).

II.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 변화

1. 지역 중심 세계화

1980년대 초반 이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확대를 통해 급격히 확산했던 세계화(globalization)와 그 이론적 근거로 활용한 세계주의(globalism)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퇴조하고 있다. 이른바 문명사적 전환의 축으로까지 간주되던 세계화는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전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제구조 형성에 주로 집중했다(Papastephanou, 2005). 세계화는 정치적으로는 영토에 기반을 둔 근대 국가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해체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과 인력이 무제한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무역을 지속하는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국가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화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왔다. 최종적으로 초국가, 또는 세계국가 완성을 위한 필수적 배경으로 간주해온 세계화는 역설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원초적 생활환경이 초래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역 중심 세계화를 지향하는 이른바 ‘세방화’(glocalization, 世方化)로 전환 중이다(안희경, 2020a).

세방화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 즉 ‘글로벌화-마이너스’(globalization-minus)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다(Latour, 2021). 그 가운데 팬데믹과 관련해서는 근대화에 따른 인구 밀집성과 대도시 출현이 자주 거론된다. 도시라는 제한된 공간에 인구가 밀집하고, 대규모화하면서 질병이 인간 사회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밀집화와 감염병의 상관관계의 해명을 위해 불과 연료라는 은유를 자주 활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역학자들은 밀집성 질환을 불, 세균 및 바이러스성 질환의 숙주인 인간을 연료로 간주한다. 대도시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이전에는 일부 질환이 동물 숙주에서 이탈해서 유목 및 농경 집단을 감염시켜도 소수집단일 경우에는 전부 사망했고, 생존할 경우 면역력을 확보했다(Karlen, 2001, 79-103). 숙주, 즉 연료의 고갈됨에 따라서 밀집성 질환이라는 불이 소멸하고, 덕분에 타 지역의 확산이 차단되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 등장한 대도시들은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으로 유행병에 부단히 연료를 공급해서 팬데믹 확산의 온상이 되었다.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농경과 교역 루트의 확보를 팬데믹의 또 다른 주요 원인에 포함한다(1998, 297-298). 특정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 유목민들은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던 반면, 유목민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해온 농민들은 오염된 분뇨나 설치류 동물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었다. 아울러서 고대 로마제국 시대부터 유럽과 북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을 잇는 교역 루트 확보와 활용 역시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서 세계가 줄곧 거대한 세균 번식장으로 바뀌었다고 다이아몬드는 평가한다. 2세기 중반 수백만 명의 로마시민이 천연두로 사망하고, 6세기와 14세기에 돌발적으로 출현한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항공기의 등장 역시 초밀도 대도시들의 네트워크화에 상당한 기여했지만, 이 역시 감염병 확산의 주요 통로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재 세계 각국은 팬데믹 이전처럼 경제적 이윤에 초점을 맞춘 무제한적 세계화보다 교역과 인력 이동을 상황에 따라 제한하는 세방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Rifkin, 2022).

2. 디지털 전환

대부분의 예상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디지털 문화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근로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까지 교육계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평가가 양극단으로 갈렸다. 디지털 낙관론자들은 “인터넷이라는 글로벌 매체는 우주를 압축하고 민족 간 대화를 복돋우며 전 지구 차원의 이해도를” 증진하고 인쇄술이나 화약의 발명처럼, 세계를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했다(Curran, 2012, 3). 일각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 디지털 기술혁신이 “거의 신비에 가까운 특질”을 부여받았다고 단언하기도 했다(Mansell, 2012, 1-2). 교육현장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디지털 테크놀로지 확산에 주력하는 교육 테크놀로지 운동까지 등장했다. 물론,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교육의 상호결합이 디지털 격차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까지 간주하는 원격교육 역시 기대를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Selwyn, 2013, 141-144).

디지털 전환에 대한 평가는 팬데믹 이후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디지털 낙관론자들의 주장이 압도적이다. 프레이(Thomas Frey)는 디지털 기술에 근거한 사회 변화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백종민, 2020). 첫째, 비접촉(non-contact)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계속 확산하고 있다. 프레이는 비행기 탑승부터 좌석까지 비접촉을 추구하는 항공 산업의 형태를 앞으로 전개될 비접촉 문화의 전형으로 제시한다. 이런 현상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 사회문화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프레이는 예상한다. 둘째, 세계 각

국은 노출되지 않는 비가시적 위협을 감시할 목적으로 AI 기반의 탐지 네트워크를 본격 활용할 것이다. 셋째, 두 번째 사회 변화 추세와 관련해서 국가 감시가 강화될 경우 시민의 인권보호가 사회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도시 봉쇄정책(lockdown)을 추진하는 중국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권보호 문제는 디지털 기술과 인권 간의 갈등 속에서 이른바 잊힐 권리나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권리, 그리고 전혀 감지되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프레이가 주장하듯 팬데믹이 가속화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은 결국 디지털 네트워크 문화로 보다 구체화하겠지만, 기술적 차원에서는 개인 및 집단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부재에 따른 접촉느낌의 상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 또는 둘 다 동시에 혼용하는 혼합현실(MR)로써 몰입을 극대화하는 몰입경험(immersive experience)을 접촉느낌의 보완재로 거론하기도 한다. 사실, 몰입 경험을 완성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디지털 기반 기술은 팬데믹 이전에도 산업계와 의료계,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 추세에 있었다(Greengard, 2019). 또 다른 보완재로는 인간과 컴퓨터,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라는 삼각체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가 있다. 디지털/물리적 도구로 제작한 디지털/물리적 사물은 실생활에 직접 활용한다거나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 간 경계를 제거할 수 있어서 교육계에도 역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Cadoz et al., 2014, 756, 760).

하라리(Yuval Harrari)의 지적처럼 ‘개인정보 보호 전쟁’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IT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정보를 상업적 이윤과 연계하는 것을 문제 삼듯이 방역정책을 명분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인들의 정보를 추적 및 관리하면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비판한다. 아감벤(Giorgio Agamben, 2020)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전체주의적 감시와 시민이 향유하는 권한이 본격적으로 상충할 때 국가 개입을 개인의 차원에서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즉 빅브라더 사회가 향후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에 지젝(Slavoj Zizek)은 감염병이 창궐하면 군사 규율에 의거한 대규모 방역 조치가 당연해서 오히려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국가 주도의 통제에 대한 아감벤의 비판을 허황된 두려움에 근거한 것으로 평가하는 지젝은 국가법과 관련해서 “복종하되 사유하고, 생각의 자유를 지키라”는 칸트식 ‘이성의 공적 사용’을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한다(Zizek, 2020, 127).

3. 경제 불평등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위기는 국가마다 상이한 편차를 노정하고 있다. 일부는

현재까지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나 농업생산이 마비된 영국의 ‘최악의 한파’(Great Frost, 1709년)와 직접 비교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은 코로나 감염과 사망에 따른 피해와 직접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대공황 이후 미국의 번영과 안녕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간주하기도 했다(Cutler & Summers, 2020, 324). IMF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예상했는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세계 경제성장률이다. 2022년 현재 세계 경제는 2021년 대비 2.5% 둔화한 3.5%의 성장률, 즉 종전 전망치 대비 1.1% 하향조정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대외 수출로 GDP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이지만, 팬데믹 이후 본격화할 경제 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이다(안성배, 2022)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 가운데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대표적인데, 옥스팜(Oxfam)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불평등 바이러스’(inequality virus)로 규정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는 옥스팜은 글로벌 수준의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된 것은 20세기에 세금 기록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래 처음이라고 평가한다. 사이먼(Joshua Simon, 2020)은 팬데믹과 봉쇄 조치로 엄청난 불평등이 창궐하고 “일자리를 잃는다면, 가장 거대한 기업들과 이미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압도적 이득을 안기는 긴급 구제가 시행되었다고 비판한다. 옥스팜 주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옥스팜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곤층은 더 가난해졌고, 경제적 및 인종적, 또는 성별 불평등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부유층의 경기침체는 종결되었고, 전 세계 10대 부자의 재산이 5400억 달러 증가했다(Oxfam, 2021).

옥스팜은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을 노동자, 성별로는 여성 노동자를 일차적으로 지목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군에 속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일 노동량을 수행하는 남성에게 비해 한층 더 실업률이 높았다. 부커(Gabriela Bucher)는 여성과 소외된 소수인종이 팬데믹이 초래한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고, 그들이 “빈곤에 빠지고 굶주릴 가능성이 더 크고, 의료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 역시 더 크다”고 강조한다(Oxfam, 2021).

지젝(Slavoj Zizek) 역시 현 상황을 정치경제적으로 접근하면서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으로 신홍 자본주의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팬데믹 이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상호 모순되게 결합한 조치들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존 정책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평가한다. 지젝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익숙한 기본소득은 국민 전체의 의료보장처럼 마르크스 이론에 근거한 ‘필요에 따른 분배’ 개념과 일치한다. 이것은 국가 책임과 책무성을 계속 분산해서 미시화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는 상이한 개념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본소득을 공산주의와 무관하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또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적은 기본소득을 채택하는 것은 자본주의 이후 도달하는 사회주의의 단계를 생략한 채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Zizek, 116-7).

4. 교육 환경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초래된 변화로 인해서 교육체제의 재구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100개국 이상이 교육시설을 폐쇄된 바 있고, 덕분에 대략 9억 명 이상의 재학생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Nicola et al., 186). 감염병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저소득층 자녀들은 무료급식을 제공받지 못했을 뿐더러 수업을 대체하는 디지털 교육환경에서도 동시에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교육정책 추진자들의 예상과 달리 팬데믹 이면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위기”가 교육성취의 격차를 본격적으로 강화한 사례에 해당한다(Robson, 2020). 디지털 격차는 OECD 국가들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본의 경우 일부 지방 대학들은 비대면 원격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불가피하게 대면 교육을 지속해야 했다.

팬데믹의 영향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는 학교로 대표되는 공교육 기관의 역할 축소, 그에 따른 부모와 가정의 역할 확대가 포함된다. 각국 정부들은 각급 학생들의 등교 연기와 학교 시설 폐쇄에 따른 학습 손실을 인터넷 기반 원격교육과 가정교육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교육정책 방향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교사 주도의 전통적 학교수업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교사의 역할 전환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코로나 시대에는 교사가 정보나 주제를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통로 기능보다는 일종의 가이드나 코치 역할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결 이후 교수(teaching) 중심의 지식 전달은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고, 대면 교육은 인성교육에 집중하자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다(이재, 2020).

교육 분야의 또 다른 변화는 가정과 학교 간 교육책임 전이 현상을 꼽을 수 있다. 교육 매체와 시간적 여유라는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학교라는 전통적 공간과 비교적 무관하게 간주하였던 홈스쿨링의 선택 역시 팬데믹을 계기로, 기존의 평가와 달리 그렇게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부모와 학습자가 새롭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표현하자면,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제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학교의 효용성을 대상자들이 주도적으로 검증하게 된 것이다. 과거부터 학교는 학생의 보호기능, 사회적 역할의 선별기능, 이론이나 원리, 또는 사상 주입기능, 그리고 기술과 지식을 발달시키는 통상적 교육기능을 담당

한다고 간주해왔다. 팬데믹의 영향에 따른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라이머의 주장처럼 이 네 가지 기능의 결합으로 완성된 종합기관의 ‘신성한 권위’를 위협하는 중이다(Reimer, 1982, 33). 일부 부모와 자녀가 시도하는 가정학습의 실험 결과에 따라서는 팬데믹 이전처럼 학습자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채 IT 기반 교육매체를 활용해서 학습자 개인이 교육을 전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백종민, 2020).

5. 교회 위기

교회 역시 기타 사회 분야처럼 팬데믹 이전까지 중시해온 기독교 가치나 규범을 성찰하고 재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교육적 차원에서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변화는 팬데믹이 초래한 교회교육의 해체 징후를 일차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교회교육은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공립학교 교육 형태를 수용하면서 구체적 교육목표나 학습자 발달 수준에 따른 구분, 그리고 일관된 교육과정을 갖춘 체계적 모델을 추구했다. 그 과정에서 주일학교를 학교형(schooling)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의도적 사회화(intentional socialization)를 추구해야 할지를 놓고 갈등하기도 했으나 양쪽 모두 대부분 성장에 초점을 집중한 게 사실이었다(Westerhoff, 1976). 하지만 팬데믹은 한 마디로 미래의 소멸 가능성보다 당장의 생존을 염려할 정도로 현재 교회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현저하게 줄었던 교인 숫자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것과 함께 급감한 교회학교 학생들의 출석률과 교사 지원율을 꼽을 수 있다. 교회 재정 역시 대폭 감소해서 교육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거나 아예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들이 생겨날 정도인데, 이것은 코로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현상이다(장신근, 2022).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오랫동안 고수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은 물론, 예배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교인 가운데 2019년 매월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한 성인의 91%가 방역을 위해 일정 기간 교회가 폐쇄되고 현장 예배가 불가능 하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대체했다고 한다. 교인 가운데 거의 절반이 특정 공간에서 진행되는 대면 예배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영상예배로 전환했다는 보고도 있다(Pew Research Center, 2020). 우리나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서 대면 예배만큼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예배가 여전히 가장 높은 만족도(89.4%)를 기록했으나 온라인 예배 역시 비교적 높은 만족도(83.2%)를 보여서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의 온라인 예배가 교인들 사이에서 공식 예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정우, 2021). 이렇게 본다

면 현재 교회는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한 전자교회(electronic church)에서 온라인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교회(digital church)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예전(liturgy)과 교회 건물에 대한 전통적 이해 역시 변화를 겪고 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예전의 형식이 해체되거나 변형 중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대규모 집회 방식의 예배보다는 소규모로 세분화하여 진행하는 예배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찬식과 유아세례, 혼인과 장례예배, 절기예배의 절차와 거기에 활용하는 예배의 소품 역시 새롭게 재구성, 변형될 뿐 아니라 교제의 핵심으로 간주해온 교인들의 공동식사는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유지하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해서 악수나 가벼운 포옹 같은 신체 언어로 친근한 감정을 표현하는 인사법은 더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 접촉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익명성, 더 나가서 해방감까지 향유하게 하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교인 간 충분한 정서적 교류가 불가능해서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서 교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교회 내부에 위생적이고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의 확보와 공간 재배치에 대한 요청이 점증하고 있다(유현준, 2021). 향후 건축학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배 및 교육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회(교육) 공간의 해체와 재구성이 본격화할 것이다.

Ⅲ. 코로나 이후 세계를 위한 기독교교육

1. 모바일 교육

코로나 팬데믹 초반,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한 섯다운 정책으로 비대면과 비접촉이 일상화하여 촉발한 타의적 고립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국민의 자의적 고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이다.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이나 밀접 접촉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다보니 공적 공간에서는 이른바 ‘섯인 이코노미’(Shut-in Economy) 현상이 계속 지속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 중심의 쇼핑보다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선호하거나 비접촉 선호를 고려한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가 섯인 이코노미의 대표적 소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접촉 소비 가운데는 물리적 제품의 전달과 소비뿐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의 경우처럼 화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원격교육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기독교교육 역시 이런 자발적 고립 추세를 고려하여 공간 차원에서 전통적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질적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한 융합(hybrid) 모형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상호 결합한 형태로는 모바일(온라인) 교회학교(mobile / on-line church school)의 운영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지역 또는 교단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교회학교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1990년대 등장했던 사이버(cyber) 교회 및 디지털 플랫폼 교회와 모바일 교회학교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정도에 달려있다. 사이버 교회는 가시적 교회에서 비가시적 교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만 전적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목사와 교인으로 구성된 조직이 실제로 온라인에 독립적으로 존재했다(유재덕 외, 2016, 167). 반면, 모바일 교회학교는 사이버 교회와 달리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을뿐더러 교회나 교단의 교육목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동시에 모바일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운영의 이해를 돕는 기본적인 교육부터 신입교사의 교육, 또는 교사 재교육과 기독교 교양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운영할 수 있다.

2. 거점 교육

팬데믹은 교회교육 전반에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창의적 고민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교육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서 부족한 교사 인력으로 다수의 학습자를 비좁은 공간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신앙전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넉넉한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갖춘 채 교수와 학습이 진행되는 공교육과 달리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수업자료와 학습 매체에 의존해야 하는 교회학교 수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다양한 여러 과목을 여유 있게 학습하는 학교수업에 비해 주일 단 하루, 그것도 극히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배와 교육활동을 통해 모두가 기대하는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교회를 구성하는 신앙공동체 전체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필수적인 교사진과 교육환경을 갖추지 못한 교회학교는 코로나로 상황이 더욱 악화하여서 등록학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잃었다(범영수, 2021). 팬데믹이 예상 밖으로 장기화하고, 지금처럼 교회학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교회학교 학생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은 누구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단기간에 부족한 인력풀이나 재원을 충원하고 보완할 수 없을뿐더러 공교육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 매체를 확보할 수 없다면 교육체계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퀴 축을 중심으로 바퀴살이 펼쳐진 형태로 구성된 '거점 교육'(core education)을 꼽을 수 있다. 제한된 숫자의 교회학교 학생, 교사 수급, 교실 같은 물리적 공간을 고려해서 교단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교회 또는 교회학교를 거

점, 즉 바깥쪽 구실을 하는 ‘거점 교회학교’(core church school)로 지정해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가령, 거점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제한된 교회의 공간을 탈피해서 가정이나 도서관, 박물관, 고궁, 미술관, 대학캠퍼스, 그리고 주변 공원이나 산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이 바깥살의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자질을 갖춘 교사들은 교회학교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이런 거점 교회학교를 주말학교와 연계함으로써 시간적 제한을 벗어나면 레익스(Robert Raikes)가 처음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구상했던 것처럼 신앙과 교양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역시 가능할 수 있다(유재덕, 2016, 91-3).

3. 안전 교육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안전을 일차적으로 중시하는 추세로 전환 중이라면, 교육이 진행되는 교회 시설 역시 안전한 공간으로 변모하지 않을 수 없다.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안전의 신학’(theology of safety)은 팬데믹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교육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안전 문제는 코로나 확산의 대응책으로 거리 두기를 강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팬데믹 초기에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등교를 포기하고 대응적(reactive) 휴교를 해야 할지, 아니면 선제적(proactive) 휴교를 해야 할지를 교육 당국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한동안 혼란이 가중되었다(Christakis, 182-4). 결국, 학교 무단결석이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부모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학습 환경을 문제 삼아 자녀들의 등교를 포기했다. 이와 달리 법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교회학교들은 일반 학교와 달리 교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신속하게 신앙교육을 정지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교육을 계속했다. 팬데믹의 학습 효과로서 안전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려는 부모들의 이런 태도는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학교가 안전한 학습 공간을 확보하려면 다음 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상되는 위험을 축소하고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습 공간의 밀집도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학급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언제든지 전염병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습자 간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과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교회학교마다 학급당 인원의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적정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학습 공간은 학습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실내 공기의 순환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접촉에 따른 팬데믹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학습자들의 동선을 단순화하는 한편, 환기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거점 주일

학교'나 야외수업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거나 환기가 용이한 텐트형, 또는 모듈형 교실을 설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Harrouk, 2020).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개별학습이나 조별학습이 가능한 분산형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김경애 외, 2020, 137). 시차를 두고 학급을 분산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교회학교 학급의 운영을 이원화하는 것 역시 유용하다. 셋째, 교회는 교사들과 학습자들을 상대로 먹거리부터 위생적인 환경 및 돌발적인 위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교단 차원에서는 교회 및 교회교육의 안전에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매뉴얼을 마련해서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

4. 생태 교육

팬데믹 이후 세계를 위한 기독교 신앙교육은 생태문제에 한층 더 민감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유발하는 온난화로 폭염이나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농산물의 수확을 증대할 의도로 사용하는 화학비료는 토양을 오염한다. 열대우림은 벌목되고, 초원에서는 가축이 과잉 방목되며, 사막은 계속 확장하는 추세이다. 월러스-웰즈(Wallace-Wells, 2019)는 인류가 21세기 말에 도달하면 지구 가운데 일부는 아예 거주 불가능 지역이 가깝게 되고, 나머지 지역 역시 못지않게 인간에게 불친절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리프킨(Jeremy Lifkin)은 현대 문명이 구상한 거대한 프로젝트는 이미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는 인간이 야생을 개발하고 코로나를 비롯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자연에서 서식처를 확보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당연한 귀결로 간주한다(안희경, 2020, 20-21). 서식지를 상실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으로 인간 사회에 침투해서 팬데믹을 발생시켰듯이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이 정기적으로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리프킨의 예상이다.

이처럼 생태계 위기에 공동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신앙교육을 통해 이른바 '동료 피조물'(fellow creatures)로 간주하는 창조세계가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Moltmann, 2012, 251). 따라서 일차적으로 자연을 상대로 한 인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생태 신학적 사고를 배양하도록 대안적 생활방식을 교육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풍요로움과 부와 성공이 존재와 삶을 규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고, 경제성장이 복지 수준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게 교육해야 한다. 동시에 학습자들이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이 제시한 '이중구속'(double bind)이라는 딜레마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Bauman & Mazzeo, 2016, 29-30). 즉, 개인이나 집단이 상호 모순된 메시지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어떤 행동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유의해서 교육해야 한다. 생태에 관한 지식과 실천이 교육내용과 교사들의 삶

속에서 별다른 모순 없이 긍정적으로 통합되고 실천 가능해서 기독교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삶을 주도하는 규범으로 제시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계속해서 기독교의 생태 신앙교육은 인간 중심, 또는 인간 예외주의(exclusivism)를 극복하도록 자연과의 공생(symbiosis)과 공산(symptiosis)을 반드시 교육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라투르(Bruno Latour)는 시간을 ‘통시성의 연장’으로, 공간을 ‘공시성의 연장’으로 구분하고 나서 우리 인류는 ‘시간의 시대’에서 ‘공간의 시대’로 완전히 이행했다고 규정한다(Latour, 2021). 생태학적으로 진보와 진행, 또는 혁명과 변화를 가리키는 통시성은 더 이상 운영체계가 될 수 없다고 라투르는 평가한다. 따라서 공간의 시대에는 ‘혁명’의 시간과 단순자(simplicator)가 ‘공존’의 시간과 복잡자(complicator)로 교체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마치 자연의 외부에 존재하듯 간주하지 않고, 다양한 동시대적 요소들과 공생(연합)하면서 분산된 역할 중 하나를 담당하는 것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그럴 때 인간에게만 중심 역할을 부여하면서 인간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시스템’(system of production)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네트워크 속한 여러 존재를 의지하면서 생성에 관심을 갖는 ‘생성 시스템’(system of engendering), 즉 공산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런 공생과 공산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규정 패러다임, 즉 인간 중심주의 프로젝트를 벗어날 수 있다.

IV. 나가는 말

코로나의 발병 이후 팬데믹이 언제 종식되고, 또 향후 세계 질서가 어떤 변화를 거쳐 재구성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바우만(Zigmunt Bauman)은 문명의 전환기를 “최고 권력의 공백기에 사는 ‘인터레그넘’(interregnum)으로 규정했다(안희경, 2014). 과거의 방식이 신속히 노화하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에도 새로운 활동은 방법조차 일절 확보되지 않은 상태를, 통치하던 임금의 사망 이후 차기 임금이 즉위하기 전까지의 쉼터 기간에 빗대어서 인터레그넘으로 간주한 것이다. 비교적 오래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의학 및 정치경제 패러다임이 작동하지 않는 현재 상황으로 국한하면 충분히 부합하는 설득력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라리(Yuval Harari) 역시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코비드19 이후의 세상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하기란 불가능해졌고 … 확실성은 이제 바닥을 쳤고 … 선택의 자유는 최고치에 다다랐다”라고 진단한다(안희경, 2020b). 한 마디로 지금은 방향을 가늠하는데 유용한 밤하늘의 ‘별이 사라진 상태,’ 곧 재앙(disaster)의 시대라는 것이다.

리프킨은 현재 상황을 ‘유행병(pandemic) 시대’로 규정하면서 가까운 시기에 새로운 바이러스를 가진 또 다른 감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면 인류는 다시 디지털로 연결된 세계인 실내에 갇혀 백신을 찾게 되고, 결국 다시 밖으로 나가더라도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이게 바로 유행병 시대의 전형이라는 것이다(안희경b, 2020). 라투르(Bruno Latour) 역시 “코로나19 사태는 미래에 올 지구 온난화와 경제위기에 대한 예행연습에 불과하다”고 동일한 관점에서 경고한다(Watts, 2020). 인도 작가 로이(Arundhati Roy)는 동일한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진단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제안한다. “전염병은 인간이 과거와 단절하고 세상을 새롭게 상상하도록 강요하는데…그것은 하나의 세계와 다음 세계를 잇는 관문인 포털이다”(IMF, 2020).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후 세계를 위한 기독교교육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일차적으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급격한 주변 상황(탈세계화, 또는 디지털문화와 교육체제)의 변화를 계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딜레마는 권위를 갖춘 교육적 처방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교육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규칙에 순응하는 태도(conformity)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규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flexibility)을 강조하고 함양하는 것이다(Bauman, 2010, 11). 둘째, 위기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과거의 견고한 구조로부터 일종의 불확실한 네트워크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의 기독교교육은 팬데믹 시대의 사회 변화 추이(지역 중심 세계화, 디지털 전환, 경제 불평등, 교육환경 변화, 교회 위기)에 한층 더 관심을 갖고 성찰하면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한 모바일(또는 온라인)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특정 교회학교와 교회들이 상호 협력하는 거점 교회학교, 안전한 학습 공간을 담보하는 교회학교, 그리고 기후변화와 생태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는 생태 교회학교의 혁신적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 백종민 (2020. 6. 15.). 코로나19, 가장 값비싼 위기...혁신 창의성의 시대 될 것.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1511283231877>에서 인출.
- [Baek, J. M. (2020. 6. 15.). Corona 19, the most expensive crisis...It will be an era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Asian Economy*.]
- 범영수 (2021. 8. 17). 예상통합,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결과 발표. **침례신문**. <http://baptistnews.co.kr/mobile/article.html?no=14374>에서 인출.
- [Beom, Y. S. (2021. 8. 17).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nnouncing the Results of the 2021 Korean church COVID-19 follow-up. *Baptist News*.]
- 안성배 (2022. 5. 17).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2, No. 8, 3-15.
- 안희경 (2014. 3. 24). 문명, 그 길을 묻다-세계 지성과의 대화: 지그문트 바우만.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03242145115에서 인출.
- [Ahn, H. K. (2014. 3. 24). Civilization, Asking the way-Conversation with the world's intellect: Zygmunt Bauman. *Kyunghyang News*.]
- 안희경 (2020. 6. 11a). 7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 원테쥬.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10600025&code=960100&s_code=ac298에서 인출.
- [Ahn, H. K. (2020. 6. 11a). Asking 7 great scholars about the future: Tiejun Wen. *Kyunghyang News*.]
- 안희경 (2020. 6. 25b). 7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 유발 하라리.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250600005에서 인출.
- [Ahn, H. K. (2020. 6. 25b). Asking 7 great scholars about the future: Yuval Harari. *Kyunghyang News*.]
- 안희경 (2020). **오늘부터의 세계**. 서울: 메디치.
- [Ahn, H. K. (2020). *The World from Today*. Seoul: Medici.]
- 유재택 외 (2016). **미래 시대, 미래 세대, 미래 교육**. 서울: 기독교.
- [Yu, J. D. et al. (2016). *Future era, future generation, future education*. Seoul: Kidokhankyo.]
- 유현준 (2021). **공간의 미래**. 서울: 을유문화사.
- [Yu, H. J. (2021). *The Future of Space*. Seoul: Eulyumunhwasa.]
- 이재 (2020. 4. 28). '원격수업' 탁친 교실 진단 시도...원론적 접근 아쉬워. **조선에듀**.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8/2020042803621.html에서 인출.
- [Lee, J. (2020. 4. 28). Attempts to diagnose classrooms facing 'remote classes'...A principled approach is not enough. *Joseonedu*.]
- 이진희 외. (2021. 6.). 수도권 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시기별 감염경로 다이나믹스.. **보건사회연구**, 41(2), 7-26.
- [Lee, J. H. et al. (2021. 6.). The Transmission Dynamics of SARS-CoV-2 by Setting in Three Wav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South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장신근 (2022. 10. 29). 유재택 박사의 "코로나 이후 세계를 위한 기독교교육"에 대한 논찬. 제51차 한국기독교교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87-289).
- [Jang, S. G. (2022. 10. 29). A Comment on "Christian Education for the Post-Corona World" by Dr. Jae-Deog Yu. *Presentation Materials Collection for the 51st Annual Academic Conference of 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 Agamben, G. (2020). Coronavirus and philosophers.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oanalysis*. www.journal-psychoanalysis.eu/coronavirus-and-philosophers에서 인출.

- Bauman, Z. (2010). **모두스 비벤디: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한상석 역. 서울: 후마니타스. (원저 2006 출판).
[Bauman, Z. (2010). *Liquid times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 Translator: Han, S. H. Seoul: Humanitas.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07).]
- Bauman, Z. & Mazzeo, R. (2016). **소비 사회와 교육을 말한다**. 나현영 역. 서울: 현암사. (원저 2012년 출판).
[Bauman, Z. & Mazzeo, R. (2016). *Talking about consumer society and education*. Translator: Na, H. Y. Seoul: Hyeonamsa.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2).]
- Cadoz, C. et al. (2014, September). Tangibility, presence, materiality, reality in artistic creation with digital technology. *40th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11th Sound and Music Computing Conference*.
- Christakis, N. (2021). **신의 화살**. 홍한결 역. 서울: 월북. (원저 2020 출판).
[Christakis, N. (2021). *Apollo's Arrow*. Translator: Hong, H. K. Seoul: Wilbook.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20).]
- Diamond, J. (1998). **총, 균, 쇠**. 김진준 역. 서울: 문학사상사. (원저 1997 출판).
[Diamond, J. (1998). *Guns, Germs, and Steel: the Fates of Human Societies*. Translator: Kim, J. J. Seoul: Moonh aksasang.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97).]
- Cutler, D. M. & Summers, L. H. (2020).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16 Trillion Virus, *JAMA*. 324(15), 1495-1496.
- Greengard, S. (2019). *Virtual reality*. Cambridge: The MIT Press.
- Harrouk, C. (2020). CLTH Proposes Adaptive Design for Schools post COVID-19. *Archdaily*. <https://www.archdaily.com/939683/clth-proposes-adaptive-design-for-schools-post-covid-19>에서 인출.
- IMF. (2020. 6). Six prominent thinkers reflect on how the pandemic has changed the world. *Life Post-Covid-1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un/06/bruno-latour-coronavirus-gaia-hypothesis-climate-crisis>에서 인출.
- Latour, B. (2021).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신기후체제의 정치**. 박범순 역. 서울: 이음. (원저 2017 출판).
[Latour, B. (2017). *Où atterrir?-Comment s'orienter en politique*. Paris: Éditions La Découverte.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7).]
- Mansell, R. (2012). *Imagining the internet: communication, innovation, and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ltmann, J. (2012). **희망의 윤리**. 광혜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2010 출판).
[Moltmann, J. (2012). *Ethik der Hoffnung*. Translator: Kwak, H. W.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0).]
- Nicola, M. et al. (2020). Th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coronavirus pandemic(COVID-19):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78, 185-193.
- Oxfam. (2021). 전 세계 99% 소득은 줄고, 세계 10대 부자들의 자산은 2배로 증가. https://www.oxfam.or.kr/press_0117_davos2022/에서 인출.
- [Oxfam. (2021). 99% of the world's income fell, while the wealth of the world's 10 richest people doubled.]
- Papastephanou, M. (2005). Globalisation, globalism and cosmopolitanism as an educational Ideal.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Vol. 37, No. 4, 534-538.
- Reimer, E. (1982). **학교는 죽었다**. 김석원 역. 서울: 한마당. (원저 1971 출판).
[Reimer, E. (1982). *School is dead: an essay on alternatives in education* Translator: Kim, S. W. Seoul: Hanmadang.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71).]
- Rifkin, L. (2022). 회복력 시대. 안진환 역. 서울: 민음사. (원저 2022 출판).
- [Rifkin, L. (2022). *The Age of Resilience: Reimagining Existence on a Rewilding Earth*. New York: St. Martin's

-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22).]
- Robson, D. (2020. 6. 7). 코로나19: 달라지는 아이들... '잃어버린 세대 될까?' *BBC NEWS*. <https://www.bbc.com/korean/news-52953309>에서 인출.
- [Robson, D. (2020. 6. 7). COVID-19: Changing children... Will they become a 'lost generation'?. *BBC NEWS*.]
- Selwyn, N. (2013). *Education in a digital world: Global perspectives on technology and education*. New York: Routledge.
- Wallace-Wells, D. (2019). *The Uninhabitable Earth: Life after Warning*. New York: Tim Duggan Books.
- Watts, J. (2020. 6. 6). Bruno Latour: This is a global catastrophe that has come from within.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un/06/bruno-latour-coronavirus-gaia-hypothesis-climate-crisis>에서 인출.
- Westerhoff, J. (1983). **교회의 신앙교육**.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원저 1976 출판).
- [Westerhoff, J. (1983).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Translator: Jung, W. S. Seoul: KCCE.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76).]
- Zizek, S. (2020). **팬데믹 패닉: 코로나19는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가**. 강우성 역. 서울: 북하우스. (원저 2020 출판).
- [Zizek, S. (2020). *Pan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Translator: Kang, W. S. Seoul: Book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20).]